

## 김정은 시대 당정책 구호와 중학교 민족음악 교육\*

배인교\*\*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구호 중 인민들의 교양 및 교육과 관련한 당정책 구호들을 예술교육계에서 받아들이고 교과서에 적용시킨 양상과, 북한의 개정교과서 가운데 중학교 과정의 음악 교과서에 실린 민족음악 교육에 대해 고찰하였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시대의 혁신 정책과 구호는 교육정책과 예술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특히 사회주의문명국과 김정일애국주의, 4대교양과 교육강국,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쟁은 2019년에 제시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귀결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에 개정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당정책 적용 양상과 민족음악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 시대에는 세계화나 세계적 수준보다는 국가적 위상의 확립과 애국주의가 강조되었으며, 음악 교과서의 내용에서도 국외의 음악적 내용보다는 국내 음악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민요가 아닌 새롭게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로 민족적 전통을 세우려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사회주의문명국, 애국주의, 우리나라제일주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민족음악 교육, 민요풍의 노래, 민족적 전통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5B5A02025469).

\*\*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공연예술연구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1. 들어가는 말

2011년 12월 북한을 이끌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남다른 행보를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그의 개혁적인 성향은 평양시 인근에 물놀이장과 같은 여러 유락시설을 설치하며 ‘후대사랑’<sup>1)</sup>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정은의 후대사랑은 ‘전반적 12년 무상의무교육제’의 실행에 따른 학제 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이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3~14년에 단행된 학제 개편 결과 소학교는 인민학교로 바뀌면서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그리고 중학교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해 학령전(1년) - 소학교(5년) - 초급중학교(3년) - 고급중학교(3년)의 새 틀을 마련하면서 2014년 4월 1일 새 학기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교재 및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완료함으로써 2017년 4월 1일자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반적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무상의무교육 대상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이름을 변경하고 기간을 늘린 인민학교 5년, 기존의 고등중학교를 분리한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과 2012년 이후 단행된 학제개편의 시행은 김정은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립되

---

1) ‘후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처럼 “뒤에 오는 세대나 시대”이며, 1998년의 북한 사회주의 헌법 3장 ‘문화’ 중 43조에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하고 있어 남한에서처럼 다음 세대, 혹은 미래를 이끌 어린이와 청소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https://ko.dict.naver.com>

지 않은 세계화와 미래의 북한을 준비하려는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학제나 교육정책 등에 관한 논의는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발표한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일연구원에서 출판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sup>2)</sup>(2015)는 김정일 시대와 달라진 교육정책, 학제 개편의 의미,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양상을 제시하였으며, 정치사상, 외국어, 수학 및 자연과학, 기술 교과와 교과 특성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정보산업 시대, 혹은 지식경제 시대의 인재 양성과 교육정보화, 그리고 국제 기준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기하여 학제가 개편되었고, 일부 과목의 수업 시수를 조정하였으며, 과학기술교육과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을 강조하면서 김일성-김정숙-김정일 관련 교육에 이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치사상 과목을 신설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교육과정과 몇몇 교과서에 나타난 변화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대 개정교과서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며, 일반적인 지적능력과 지식의 활용능력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 전개방식과 교과서의 외형적 측면을 개선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상화 교육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을 찬양하려는 북한 교육계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결국 김정은 시대가 세계화를 지향하나 통제라는 장벽의 높이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시대별 교육담론”<sup>3)</sup>에서는 북한의 체제 성립기부터 김정일 시대,

---

2) 통일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3) 차승주, “북한의 시대별 교육담론,” 『통일인문학』, 제79집(2019), 253~285쪽.

그리고 김정은 시대까지 각 시기별 교육 담론을 분석하였다. 김일성 시대에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를 통해 교육의 대중화를 지향하였으며, 김정일 시대에는 선대의 교육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을 이룩하기 위해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후 여러 교과목을 대상으로 김정은 시대 개정교과서의 내용과 변화양상을 검토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나 음악 교과서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48년 체제 성립 초기부터 문학예술을 체제선전과 인민교양과 같은 정치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음악정치”라는 정치개념용어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북한의 교육과정 속에서 음악 교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교육관과 함께 정치관의 변화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일정 정도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북한의 민족음악 교육이 개정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된 북한 중학교 과정의 음악교과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새롭게 제시되는 각종 당정책 구호는 북한 인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계에도 당연히 구호가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구호 중 예술 및 교육계에 영향을 미친 구호들을 예술교육 전문 잡지인 『예술교육』<sup>4)</sup>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4) 『예술교육』은 2.16예술교육출판사에서 2001년부터 발행한 예술교육잡지이며, 이 글에서는 2012년 이후 출판된 권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김정은 시대의 문예 관련 당정책 구호와 예술 교육계의 대응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다양한 당정책 구호를 제시하며 북한 인민들이 전변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실제 체감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인민교양이나 교육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구호를 집권 초기부터 제시하였으며, 예술교육분야에서도 이를 따르는 결의와 제안, 구호들을 쏟아내었다. 문화, 예술, 교육과 관련된 당정책 구호는 2012년의 ‘사회주의문명국’, 2013년의 ‘김정일애국주의’, 2014년의 ‘4대교양’, 2015년의 ‘교육혁명’, 2016년의 ‘5대교양’, 2017년의 ‘사회주의 경쟁 열풍’, 2018년의 ‘교육강국 건설과 혁명적 학습기풍 수립’, 그리고 2019년의 ‘우리국가제일주의’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의 당정책구호와 예술교육계의 대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COVID-19로 인해 북한의 문예잡지가 입수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가장 먼저 나온 문예 관련 당정책 구호는 ‘사회주의 문명국’이다. 이 구호는 김정은이 2012년 4월 6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가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4.6담화’)에서 처음으로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김정은의 “교육·보건·문학예술·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도 끊임없는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사회에 희열과 량만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라는 언급은 예술교육계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예술교육자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sup>5)</sup>을 결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예술인재육성”<sup>6)</sup> 외에 수많은 글에서 교원과 교육자들이 먼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시의 전공지식수준과 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예술인재를 교육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김정일애국주의’가 등장하였으며, 김정은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정일의 유훈인 <자기 땅에 받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를 언급하며 “예술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교수교양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학생들을 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틀어쥐고 자기 수령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의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울줄 아는 혁명적 예술인재들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애국사상을 강조하면서 “《애국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내가 지켜선 조국》,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봄이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와 같은 노래들을 높이 부르며 세상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주체예술의 미래를 가꾸는 보람찬 길에 애국의 한마음으로 다 바쳐나가”자고 하였다.<sup>7)</sup>

이러한 김정일의 유훈과 ‘사회주의문명국’,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의 강조는 예술교육분야에서 교육형식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형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학과목에서 “인식능력, 응용능력,

5) 미상, “(사설)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대를 높은 예술교육성공과로 끝없이 빛내여가자,” 『예술교육』, 제2호(2012), 13쪽.

6) 본사 기자, “(단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예술인재육성,” 『예술교육』, 제2호(2013), 12쪽.

7) 미상, “사설: 김정일애국주의를 예술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자,” 『예술교육』, 제6호(2012), 13쪽.

창조능력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적극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실습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선군문학예술창조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가져야 한다<sup>8)</sup>고 하였다.

예술교육에서의 ‘김정일애국주의’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예술교육사업에 구현하도록 하였다. 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 있게 벌여 전반적인 예술교육 수준을 높이 올리도록 하였으며, 선군시대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예술교육부문에 교육혁명의 불길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혁명”을 제시하였다. 교육혁명은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예술교육사업을 끊임 없이 혁신”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짐으로써 사상적인 면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sup>9)</sup>이다.

김정은의 집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북한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자들의 자기비판과 함께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은하수관현악단이 해체된 직후에는 “주체 예술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예술적재능만을 배워주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며 우리 당의 사상사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학예술, 선군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예술인재를 키워내는데 목적”을 두며, “사회주의의 변질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교양을 하

---

8) 미상, “사설: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대를 높은 예술교육성공과 끝없이 빛내여 가자,” 『예술교육』, 제2호(2012), 13쪽.  
9) 미상,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예술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예술교육』, 제1호(2013), 13쪽.

지 않고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를 송두리째 말아먹게” 되기 때문에 “순수 예술을 위한 예술만을 배워주는 예술지상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오직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예술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sup>10)</sup>고 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 6월에 제안되었던 김정은식 속도전인 ‘마식령 속도’ 창조를 예술교육에서도 반영하여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교육사업에서도 낡은 사고방식과 방법에서 벗어나 시대의 요구와 발전추세에 맞게 올바른 교육발전전략을 세우고 교육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하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분야에서도 기초교육과 정보기술교육,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컴퓨터에 의한 교수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식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리용하며 교수에서 컴퓨터의 리용률을 높이고 원격강의와 먼거리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교육수단을 현대화”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당의 “교육중시, 과학중시사상이 현실로 꽃피나게”하자<sup>11)</sup>고 하였다.

한편 2014년 5월에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김정은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자”는 서한을 예술인들에게 보냈다. 이 서한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이 장엄하게 벌어지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문학예술을 수령의 문학예술로, 당정책화된 문학예술, 인

---

10) 김휘웅, “론설: 학생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적예술인재로 키우는것은 주체 예술교육의 근본문제,” 『예술교육』, 제4호(2013), 16-17쪽.

11) 차성철, “연단: 교육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몇가지 문제,” 『예술교육』, 제2호(2014), 34쪽.

민의 문학예술,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확고히 틀 어쥌고나가야할 강령적지침”이며,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본받아 “기백있고 약동하는 음악예술활동으로 당의 음악정치를 받드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결의<sup>12)</sup> 하였다. 김정은은 서한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이 수준과 실력이 낮다보니 창작지도에서 작품의 종자와 주제, 형상을 놓고 잘못된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제대로 가려보고 옳은 완성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요구성도 높이지 못하고있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교육에서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 시대의 부름에 외면”하지 말고 “예술인재육성을 위해 얼마나 지혜와 정열을 바치고 땀심을 들였는가 하는것을 량심적으로 돌이켜”보자<sup>13)</sup>고 하였다.

예술인과 예술교육인이 혁신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시 팽배하였던 학생과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도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집단주의 교양의 강화를 필요로 하며, “자라나는 학생청소년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나라의 믿음직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과제<sup>14)</sup>라고 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집단주의 교양은 이후 “4대교양”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하반기에 제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대 교양은 “김정일 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이다. 4대 교양이라는

12) 미상, “소식: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되었다,” 『예술교육』, 제4호(2014), 23~24쪽.

13) 미상, “사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예술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예술교육』, 제5호(2014), 11~12쪽.

14) 김순녀, “연단: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자면,” 『예술교육』, 제5호(2014), 46쪽.

사상교양이 필요한 이유는 인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은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교체될수록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것”이기 때문이며,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낼 수없으며 수령이 이룩한 업적도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게”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도덕교양에 대한 강조가 주목된다. 도덕교양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지니고있어야 할 품행이나 품성을 소유하도록 하는 교양”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 하나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패륜패덕”이 범람하지 않도록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웃사람을 존경”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자고<sup>15)</sup> 하였다.

2015년에는 교육혁명과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을 예술교육에 구현하기 위해 예술교육의 과학이론 수준과 기술수준, 정보화수준을 높이는 것과 지난해의 교육혁명과 함께 제시된 4대 교양이 강조되었다. 2014년 9월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알려진 김정은의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제시된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품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며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15) 김춘복, “연단: 학생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하자면,” 『예술교육』, 제6호(2014), 21~22쪽.

있고 평생동안 배울수있는 훌륭한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사랑, 뜨거운 인민사랑의 빛나는 결정체”라고<sup>16)</sup> 하였다.

그리고 교육혁명은 2013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2015년에 급부상하였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사상교육이 맞물려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교육에 접목시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며 교수와 실습의 전 과정을 현대화, 정보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사상교육은 “교육사업의 전 과정에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청소년들을 주체문학예술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열혈의 투사들로 튼튼히 준비”하도록<sup>17)</sup>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의 4대 교양에 위대성교양을 추가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위대성교양, 신념교양, 당정책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정치사상교양으로 묶어 강조<sup>18)</sup>하였다.

2016년에는 예술교육에서의 자강력제일주의가 등장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까지 이어지는 자강력제일주의는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며,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강력의 정신력으로 사대주의를 불사르고 수입병에 종지부를 찍는 자력갱생의

---

16) 최은경, “해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원대한 목표,” 『예술교육』, 제1호(2015), 17쪽.

17) 미상,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예술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해나가자,” 『예술교육』, 제1호(2015), 11~12쪽.

18) 김영직, “해설: 예술교육부문 학생들을 사상전의 기수들로 키워내자,” 『예술교육』, 제2호(2015), 20~21쪽.

<표 1> 2012~2019년의 문예 관련 당정책 구호

정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	■	■	■	■	■	■	■
사회주의 문명국								
김정일 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교육혁명		■	■	■	■	■	■	■
마식령속도		■	■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	■	■				
4대 교양			■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	■	■	■	■
자강력제일주의					■	■	■	■
5대 교양					■	■	■	■
사회주의 경쟁열풍						■	■	■
교육강국 건설과 혁명적 학습기풍 수립							■	■
우리국가제일주의								■

대진군”이 필요하다<sup>19)</sup>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의 5대 교양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5대 교양은 2014년의 4대 교양의 기본이라고 하는 위대성교양을 넣어 5대교양으로 확정되었다. 위대성교양은 “새 세대들속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 품모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켜 수령을 중심으로한 혁명대오의 사상의 지적통일을 이룩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과 반체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

19) 미상, “해설: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 『예술교육』, 제5호(2016), 12쪽.

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현실은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며,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여 “학생들에게 언어레절, 인사레절 등을 잘 가르쳐주어 그것을 언제나 생활화, 체질화하도록”<sup>20)</sup> 하였다.

2017년에는 예술교육부문 5개년 전략고지 점령을 위한 총돌격전<sup>21)</sup>과 함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이 강조되었다. 만리마속도는 마식령속도에 이어 등장한 북한식 속도전이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예술교육부문에서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를 들고 집단주의기풍을 발휘하며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벌이자고 하였다. 이어 2018년에는 2014년의 인재강국에 더하여 교육중시사상에 의한 교육 강국 건설과 혁명적 학습기풍 수립이라는 구호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012년부터 쌓아 놓은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개념으로 모아졌으며, 예술분야에서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와 함께 주체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라<sup>22)</sup>고 하였다. 우리

20) 미상, “사설: 예술교육부문에서는 5대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혁명적예술인후비로 키워내자,” 『예술교육』, 제6호(2016), 11~12쪽.

21) 미상, “사설: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쳐 예술교육부문 5개년전략 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예술교육』, 제1호(2017), 11~12쪽; 미상, “사설: 예술교육부문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예술교육』, 제4호(2017), 11~12쪽.

22) 리창덕, “해설: 예술교육부문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예술교육』,

국가 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며, “주관이나 추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타당성과 생활적바탕을 가진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이라고 하였다.

2012년부터 매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개혁, 혹은 혁신 정책과 구호는 교육정책과 예술영역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강요되었다. 특히 사회주의문명국과 애국주의, 인민교양과 교육강국,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쟁은 2019년에 제시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귀결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당정책들이 예술교육부분, 특히 새롭게 개정된 음악 교과서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북한 중학교 개정 음악교과서의 민족음악 교육

2012년부터 준비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2017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학제 개편에 따른 교과목의 변경 및 내용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해당 교과서의 전면적 개편을 필요로 하였다.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초급중학교 『음악무용』 1~3, 그리고 고급중학교 『예술』 1~3이다. 이 중 초급중학교 3학년 『음악무용』과 고급중학교 3학년 『예술』교과서는 DVD에 수록되어 있으며 열람만 가능하다.<sup>23)</sup> 개정 출판된 교과서와

---

제3호(2019), 21~22쪽.

23) 최동욱·조영필·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초급중학교 1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최동욱·신옥연·장명숙·신은영, 『음악무용(초급중학교 제2학년

함께 부분적이기는 하나 초급중학교 1학년용 『음악무용교수참고서』,<sup>24)</sup> 고급중학교 1학년용 『예술(음악무용)교수참고서』,<sup>25)</sup> 그리고 사범대학에서 교재분석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중학교음악무용 교재분석』<sup>26)</sup>이 입수되어 북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 내용과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교수참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초급중학교 1학년 『음악무용』과 고급중학교 1학년 『예술』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중학교 음악 교육의 목적과 교과서의 체제

교수참고서는 음악 과목 교육의 목적과 원칙, 음악 교과의 특성 및 교수 진도표, 그리고 각 단원별 교수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먼저 교수참고서에서 중학교 음악 과목의 교육목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인용문에서 보듯이 초급중학교과 고급중학교 모두 음악 교과는 학생들을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미적 정서의 소유자로

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권명숙·신옥연·림옥화·맹철웅·문배금·석은주, 『예술(고급중학교 1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권명숙·신옥연·리선옥·맹철웅·서명일·리은경, 『예술(고급중학교 2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DVD 중소학교교과서·참고서(컴퓨터자료)/교육도서전자출판사』(십양: SKS, 2014~2016); 『(2013 이후)북한 교과서: 김정은 시대 북한교과서=교육도서[전자자료]/교육도서출판사』(평양: 조선컴퓨터센터, 2017).

24) 최동옥·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제1학년)』(원산: 교육도서출판사, 2013).

25) 권명숙·리선옥, 『예술교수참고서(음악무용) 고급중학교 제1학년』(원산: 교육도서출판사, 2013).

26) 김군일·김명호·김송설·림옥화, 『중학교음악무용교재분석(사범대학)』(원산: 교육도서출판사, 2016).

## <그림 1> 중학교 교수참고서의 차례

차 례	차 례
1. 초급중학교 《음악무용》과목교육의 목적과 원칙 . . . . . 3 1) 《음악무용》과목교육의 목적 . . . . . 3 2) 《음악무용》과목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 . . . . 3 3) 초급중학교 1학년 《음악무용》과목교수의 목표, 범위와 수준 및 도달기준 . . . . . 4 2. 초급중학교 1학년 《음악무용》과목교육의 특성, 교수진도표 . . . . . 7 1) 1학년 《음악무용》과목교육의 특성 . . . . . 7 2) 1학년 《음악무용》과목의 교수진도표 . . . . . 8 3. 초급중학교 1학년 《음악무용》과목의 교수내용과 방법 . . . . . 10 별첨의 허락순기 김필성장군의 노래 . . . . . 10 나도 원망할수 있다 화오녀기예우기 귀리배우기 . . . . . 19 그 사람 잊지 못했소 고아문 우리 세님 . . . . . 29 아름다운 우리 나라 노래별곡으로 예미소리 . . . . . 46 놀이 부르기 힘입어 들리령가요 우리는 아름다운 즐거운 기뻐들라감상 교육저대독주 《제일 좋은 내 나라》 감상 . . . . . 70 우리도 편지받았다 소년별곡선의 노래 . . . . . 76 즐거운 우리 무대 . . . . . 85	1. 고급중학교 《예술》(음악무용)과목교육의 목적과 일반적원칙 . . . . . 3 1) 《예술》(음악무용)과목교육의 목적 . . . . . 3 2) 《예술》(음악무용)과목교수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원칙 . . . . . 3 3) 고급중학교 《예술》(음악무용)과목교수의 목표, 범위와 수준 및 도달기준 . . . . . 4 2. 고급중학교 1학년 《예술》(음악무용)과목교육의 특성, 교수진도표 . . . . . 7 1) 고급중학교 1학년 《예술》(음악무용)과목교육의 특성 . . . . . 7 2) 고급중학교 1학년 《예술》(음악무용)과목의 교수진도표 . . . . . 8 3. 고급중학교 1학년 《예술》(음악무용)과목의 교수내용과 방법 . . . . . 10 예곡가 . . . . . 10 김성조선의 일상을 그려며 백유자 . . . . . 19 장준의 기상을 말지며 조선청년행진곡 . . . . . 33 기악용어강설과 선율창작 관현악《형산열에 흥년이 왔네》감상 . . . . . 47 선율창작 . . . . . 53 우리 장인의 멋을 살려 강성부용어비행 . . . . . 56 군중무용을 위한 춤동작 4박자계통의 음악에 따르는 춤동작 . . . . . 67 3박자계통의 음악에 따르는 춤동작 . . . . . 73 태반의 모습을 꾸러하며 인연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 . . . . 78 우리 학단 기념별곡 . . . . . 86

### 초급중학교 교수참고서

### 고급중학교 교수참고서

<표 2> 중학교 과정 음악 과목 교육 목적

초급중학교 『음악무용』 과목 교육 목적	고급중학교 『예술』 과목 교육의 목적
음악무용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을 일반문화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춘 미적정서의 소유자로 키우며 음악무용예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음악감상 및 표현, 군중무용과 같은 실천실기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킴으로써 고급중학교 음악무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술적 기량을 키워주는데 있다. <sup>27)</sup>	예술(음악무용)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을 일반 문화적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춘 미적정서의 소유자로 키우며 그들에게 음악무용예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충분히 쌓아주고 음악감상 및 표현, 창작, 군중무용과 같은 실천실기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킴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예술적기량을 키워주는데 있다. <sup>28)</sup>

키우며, 음악과 무용을 결합한 통합 교과 운영을 의도하였다. 그리고 고급중학교에서는 초급에서 더 나아가 기초 지식 교육에서 나아가 “실천실기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킴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

27) 최동욱·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제1학년)』, 3쪽.  
 28) 권명숙·리선옥, 『예술교수참고서(음악무용)(고급중학교 제1학년)』, 3쪽.

극 이바지할수 있는 예술적기량을 키워주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초급과 고급 음악 교과의 목적 중 다른 점은 ‘창작’ 여부이며, 초급이 아닌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창작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급중학교 음악교과 내에 이미 선율창작 관련 교과 내용이 있어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창작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교수참고서는 교육 목적과 함께 음악무용교과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sup>29)</sup>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하나는 당정책의 반영이며, 다른 하나는 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이다. 교수 내용에서 당정책을 반영한다는 것은 북한의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채택된 내용일 것이나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생활에서 철저하게 구현하도록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김정은의 영도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수행하며,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교재내용과 결부시켜 “모든 학생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교수참고서는 수업과정에서 음악 감수, 감상, 표현, 무용 실기 능력<sup>30)</sup>과 그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다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습득시킬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교사는 합리적인 교수방법을 적극 탐구하고 교수 활동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교사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지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고급중학교

29) 최동욱·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제1학년)』, 3~4쪽; 권명숙·리선옥, 『예술교수참고서(음악무용)(고급중학교 제1학년)』, 3~4쪽.

30) 한국의 음악교과는 대체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영역으로 구분하나 북한에서는 감수와 감상,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현에 가창과 악기연주가 포함되어 있다.

<표 3> 초급중학교 『음악무용』 분류

초급중학교 1학년	초급중학교 2학년	초급중학교 3학년
불멸의 혁명송가	영원한 해님의 노래	내 안거사는 품
나도 연주할수 있다	손풍금독주와 경음악감상	그사랑 잊지 못해요
그 사랑 잊지 못해요	해님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높이 부르자 항일혁명가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노래불러요	혁명가극노래	우리 장단 좋아요
높이 부르자 항일아동혁명가요	높이 부르자 항일아동혁명가요	가야금독주와 취주악감상
흥겨운 기악음악감상	지덕체자랑 꽃피워가요	축복받은 우리 설날
우리도 준비되었다	우리 마음 우리 희망	
즐거운 우리 무대	즐거운 우리 무대	즐거운 우리 무대

의 『예술』 과목의 창작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래성부편곡을 위한 화성적수법과 반주를 위한 화음선택 및 반주형태 등과 같은 실천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인식시켜 그에 기초하여 실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음악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으나 무용실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살리”도록 하였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군중무용의 특성을 정확히 체득하고 랑만에 넘쳐 활기있게”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음악 교수 원칙에서 유의할 점은 음악의 이론을 실제에 활용하도록 하며, 지식을 “외우게 하는 암기식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즐거운 우리 무대>나 <우리 학급 기량발표회>라는 활동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중 초급중학교 교수참고서에 제시된 초급중학교의 <즐거운 우리 무대>의 교수 목적은 “학생청소년들은 언제나 활기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무엇이나 막히는데가 없이 다 할줄이는 다방면적인 인재로 준비해나가도록 하

<표 4> 고급중학교 『예술』 분류

고급중학교 1학년	고급중학교 2학년	고급중학교 3학년
애국의 마음 노래에 담아	애국의 마음 노래에 담아	영원한 태양의 노래
태양의 모습을 우리르며	태양의 모습을 우리르며	태양의 모습을 우리르며
강성조선의 앞날을 그리며	전승의 위업 영원하리라	전승의 그 업적 영원하리라
청년군중무용	군중무용을 위한 춤동작	군중무용을 위한 춤동작
우리 장단의 맛을 살려	민족음악의 흥취를 느끼며	민요의 맛을 느끼며
기악음악감상과 선률창작	기악음악 감상과 선률창작	청춘을 받치자 내 조국에
청춘의 기상을 떨치며	혁명가극 노래	
우리 학급 기량발표회	우리 학급 기량발표회	우리 학급 기량발표회

는데 있”으며, “음악무용에서 배운 내용을 공고히 다지고 소년반별 발표회를 통하여 다정다감한 정서와 무대담, 집단력을 키워주는데 있다”라고 하였다.<sup>31)</sup> 이는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습 차원의 단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개정되어 2017년부터 적용된 북한의 음악 교과는 개정된 학제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이며, 엘리트음악교육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과이다. 따라서 음악 교과를 통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해 북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적 정서를 갖추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형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와 달리 일정한 분류어로 묶어 배치하고 그 주제에 맞는 악곡을 선정하여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음악무용』과 『예술』 과목 교과서에서 설정한 분류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각 교과서에 제시된 분류어는 대체로 7~8개이

31) 최동욱·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제1학년)』, 85쪽.

며 마지막의 <즐거운 우리 무대>를 제외하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만 6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두 단원씩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분류어들을 보았을 때 각 과정과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각 교과서의 첫 부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담은 노래들이 담겨 있을 것이 예상되며, 초급중학교의 경우 항일혁명가요 항목이, 그리고 고급중학교의 경우는 애국, 태양, 조선, 전승, 청춘, 조국, 그리고 군중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초급중학교 음악 교과서와 민족음악 교육

북한의 초급중학교는 우리의 초6~중2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개정 개편으로 인해 이전의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이 나뉘어 새롭게 신설된 학제이다. 먼저 초급중학교 1~3학년의 음악무용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초급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에는 14개의 악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3학년 교과서에는 12곡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창곡의 경우 오선보로 기보된 악곡과 숫자보로 기보된 악곡이 섞여 있고 교수참고서에서는 숫자보를 오선보로 바꿔 보는 실습이 있기도 하다. 이는 사회와 직업소에 보급된 악보가 대체로 숫자보 악보이기 때문에 숫자보를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감수와 감상, 표현 영역에 악곡을 고루 배치하였으며, 초급중학교의 교수원칙에는 없었던 창작 교육도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창작>이라는 소재목을 붙여 놓은 면이 두 번 나온다. <혁명군은 왔고나>라는 창가조의 5음음계 악곡을 제시한 후 선율의 동기를 만들어 보는 활

동<sup>32)</sup>과 2/4박자의 C장조로 제시된 동기 선율 두 마디를 바탕으로 총 8마디의 한도막형식 악곡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수록하였다. 특히 두 번째 활동에서는 “만든 선율을 시창 또는 악기로 연주하고 평가를 받아봅시다”<sup>33)</sup>라는 수행평가 항목을 두어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초급중학교의 수록 악곡 중 민족음악교육과 관련된 단원은 7개이며, 초급중학교 1학년의 ‘흥겨운 기악음악감상’ 중 고음저대독주 <제일 좋은 내 나라>, 어은금중주 <장군님과 아이들>, 2학년의 <최우등 5점꽃>, 그리고 3학년의 ‘우리 장단 좋아요’에서 <굿거리장단뿔창곡>과 <정일봉을 노래해요>, ‘가야금독주와 취주악감상’중 가야금독주 <지덕체 사랑>이다. 1학년에서는 감상영역으로, 2학년에서는 표현영역의 가창으로, 그리고 3학년에서는 가창과 감상영역에 민족음악을 배치하였다.

먼저 ‘흥겨운 기악음악감상’의 제재곡인 고음저대독주 <제일 좋은 내 나라>는 7음음계의 곡이나 민족악기인 고음저대, 단소, 장세납, 장고, 어은금 등으로 편성한 기악곡이며, 안팎장단과 반살풀이장단을 넣어 흥겨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편곡된 작품이다. 이와 함께 어은금중주 <장군님과 아이들>도 7음음계의 노래이나 민족악기인 어은금이 연주한 것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흥겨운 기악음악감상’은 민족악기와 민족장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제일 좋은 내 나라> 단원의 감상 지도는 성악곡을 기악곡으로 편곡했을 때 사용된 노래의 반복 횟수의 확인과 악기의

32) 최동욱·신옥연·장명숙·신은영, 『음악무용(초급중학교 제2학년용)』, 28쪽.

33) 최동욱·신옥연·장명숙·신은영, 『음악무용(초급중학교 제2학년용)』, 51쪽.

<표 5> 초급중학교 『음악무용』 교과서 수록 재제곡

초급중 1학년		초급중 2학년		초급중 3학년	
김일성장군의 노래	2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2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2
조선의 별	6	더 높이 부르자 김정일장군의 노래	5	여기서 내가 산다	9
하모니카배우기	7	손풍금독주 《보물찾아내기》	7	원수님께서 주신 새 교복	12
기타배우기	11	경음악 《소년단행진곡》	15	김정은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19
고마운 우리 해님	19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17	즐거운 무도곡	21
대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25	김정은원수님 부디 안녕하세요	24	끓는 피는 더끓어	25
매미소리	29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	25	굿거리장단륜창곡	26
새들이 노래해요	35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27	정일봉을 노래해요	28
우리는 아동단원	38	동무야 모여라	29	가야금독주 《지덕체 자랑》	41
소년애국가	41	소년군가	31	취주악 《발걸음》	50
고음저대독주 《제일 좋은 내 나라》	46	우리 학급동무들	38	우리 분단 설맞이	53
어은금종주 《장군님과 아이들》	49	최우등 5점꽃	47	설눈아 내려라	65
소년빨찌산의 노래	54	하나의 마음	49		
300만은 총폭탄	61	따르자 김정은원수님	56		

사용, 그리고 장단의 감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족의 자랑”인 민족목관악기와 어은금을 “상식자료”로 간단히 해설<sup>34)</sup>해 주도록 하였다. 3학년의 가야금독주 <지덕체 자랑> 또한 대표적인 민족현악기에

34) 최동욱·조영필·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초급중학교 1학년용)』, 72~74쪽.

<그림 2> 초급중학교 음악교과서 제재곡 중 민요풍의 노래

**제일 좋은 내 나라**

별곡의 넘쳐 풍치서래 자사 장광근, 작곡 함기환, 정영호

1. 제 아니던게가-꽃-선 자 라나면소년 꽃 선  
이 말 가-아 내나 라면 꽃 선 오-았아 오  
아 장-꽃 아 - 정 말-꽃 아 -  
아이들을-향으로 버린드노-나라라 제 일좋아-요

2. 온 나라에 활짝 열린 11년제 꽃다운  
꽃다운을 내내면 내내꽃이 열려오  
아 장 꽃아 장꽃 꽃아 온 세상이 우리와  
다함은 내 나라 제일 좋아요

**11/8분 5/4박**

1. 최우등 5점꽃  
2. 최우등 5점꽃

**정일봉을 노래해요**

동요의 강령으로 읽게(굿거리장단) 작사 정제, 작곡 함기환

1. 제 나라에 각 알 쉰우며 이 날 제인 새운 는  
제 상에서 정 일봉을 추워 온 노래 요  
(후렴)  
정 일봉을 노래 - 정 일봉을 노래 -  
정 일봉을 노래 - 정 일봉을 노래 -

2. 제 땅이 꽃이 피어나니 보이는 연두그린  
푸르니 연고 자는 일 푸른 자랑해요  
(후렴)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록된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2학년의 가창 영역 중 <최우등 5점꽃>은 “5/8박자의 엇모리장단을 타고 3도와 2도 음정, 연속적인 동조음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유순하게 흐르면서 장식음이 결합된 지속음의 반복으로 민요 선률의 특징과 가사의 정서를 흥취나게 표현”하는 곡이며, 엇모리장단과 민요5음계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곡<sup>35)</sup>이다. ‘5점꽃’은 김정은 시대에 학생들에게 강조된 교육열의 상징<sup>36)</sup>이며, 가창곡으로 만들어 부르게 하면서 경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학년의 <굿거리장단튠창곡>과 <정일봉을 노래해요>는 굿거리장단을 익히면서 민요풍의 노래를 부르도록 한 단원이다.

<제일 좋은 내 나라>와 <최우등 5점꽃>, <굿거리장단튠창곡>, 그리고 <정일봉을 노래해요>는 민요풍의 노래로 분류되며, <지덕체 자랑>과 <장군님과 아이들>은 민요풍의 노래는 아니나 민족악기로

35) 김군일·김명호·김송설·림옥화, 『중학교음악무용교재분석(사범대학)』, 31쪽.  
36)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5점꽃’ 담론으로의 귀결,”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서울: 경진, 2014), 278쪽.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장단을 익히는 교육을 장단별로 하고 있으며, <굿거리장단 룬창곡>과 굿거리장단의 <정일봉을 노래해요>를 가창하면서 장단을 익히게 하였다.

개정된 초급중학교 음악무용과목의 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문화적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춘 다재다능한 인재들로 키울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교수 입장에서 보면 문화적 소양은 김정은의 령도와 같은 정치사상교육과 통합교수, 그리고 음악무용의 결합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갖춰지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중학교의 정치사상교육은 음악무용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일생-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혁명적 수령관을 잘 표현하며 이들에 대한 절대적 흠모를 표출할 수 있는 제재곡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시창, 가창, 악기연주 등을 개별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일정한 주제로 묶어 교수함으로써 음악을 입체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음악 표현능력과 활용능력을 모두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고마운 우리 해님>의 경우 제재곡으로 가창을 하고, 같은 조성의 C장조를 시창하게 하였으며, 악기연주와 합주까지 연계하여 교육하도록<sup>37)</sup> 하였다. 그리고 민족음악 교육을 위해 민요풍의 노래를 가창하거나 민족악기로 민요풍의 노래와 양악 노래를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게 하였으나 단원과 제재곡의 수는 많지 않았다.

### 3) 고급중학교 음악 교과서와 민족음악 교육

고급중학교 1~3학년의 『예술』교과는 음악, 무용과 함께 미술 교과

---

37) 김송이, “초급중학교 음악무용과목교육내용편성의 특성,” 『교원선진원수첩』, 제1호(평양: 교육신문사, 2017), 147~148쪽.

<표 6> 고급중학교 『예술』 교과서 수록 제재곡

고급중 1학년 악곡		고급중 2학년		고급중 3학년	
애국가	4	조국찬가	3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3
내 나라의 푸른 하늘	6	빛나는 조국	4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4
배우자	7	영원한 우리의 맹세로 새깁니다	16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5
우리 선생님	13	심장을 받들라	18	가리라 백두산으로	6
조선청년행진곡	14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28	인민의 환희	7
나는 청년동맹원 되었네	19	11메터와 25초	31	7.27 행진곡	20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감상	20	우리 장단이 좋아	48	위대한 전승의 명절	22
선율창작	25	도라지	54	혈혈아래 사과바다	37
강성부흥아리랑	27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 감상	55	노들강변	41
먼저 찾아요	30	선물에 아래 성부 붙이기	58	전선행렬차	59
통일무지개	31	불후의 고전적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59	내가 지켜선 조국	61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38	해마다 봄이 오면	63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서	42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63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	43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	64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64		

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음악교과의 단원별 악곡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고급중학교 교과서는 분류어별로 수록 제재곡이 2~5개까지 다양하다. 또한 과목의 마지막에 ‘우리 학급 기량발표회’를 두어 1년간 배운 노래와 기악, 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북한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급중학교의 『예술』에는 현재 국가제일주의를 표상하는 작품으로 알려진 <조국찬가>(2013)와 함께 1947년에 창작된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의 <애국가>와 <빛나는 조국>을 수록해 놓았다. 또한 졸업과 함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과정이므로 군대의 위용 및 용감성을 형상한 노래들도 교과서에서 볼 수 있으며, 사회로 나가기 전의 마지막 의무교육 과정인 만큼 청년으로의 활동과 ‘청춘’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래를 배치하고 있는 점에 눈에 띈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민족음악 교육은 앞서 살펴본 초급중학교에 비해 그 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과정의 ‘기악음악감상’ 중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감상하며 더불어 민요풍의 노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신민요 <풍년가> 악보를 수록하였고, ‘우리 장단의 멋을 살려’의 <강성부흥아리랑>, <먼저 찾아요>, <통일무지개>가 가창 표현 영역 제재곡으로 제시되었다. 2학년은 ‘민족음악의 흥취를 느끼며’에 민요풍의 노래 <우리 장단이 좋아>와 신민요 <도라지>를 가창하도록 하였으며, 민요풍의 노래 <조선은 하나다>를 원곡으로 한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를 감상 제재곡으로 두었다. 그리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중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를 감상과 함께 가창곡으로 제시하였다. 3학년 교과서에는 ‘민요의 멋을 느끼며’에 모란봉악단이 창작한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신민요 <노들강변>을 가창 제재곡

으로 두고 이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군중무용을 위한 춤동작’에 안평장단에 의한 춤동작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양산도장단에 의한 춤동작 <노들강변>을 이어 배치하여 민족적 선율과 민족장단, 그리고 민족적 성격의 군중무용으로 이어 놓았다. 이를 보면 민요풍의 노래 9곡과 신민요는 2곡까지 모두 11개를 두어 초급중학교의 4곡보다 세 배 정도이다. 이들 중 교수참고서와 사범대학의 교재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민족음악의 교육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저 감상 영역의 제재곡인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와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는 모두 민요풍의 노래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와 <조선은 하나다>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는 1960년에 김옥성이 작곡한 민요풍의 노래이며, 관현악과 합창으로 창작되었다가 1970년에 김영규에 의해 관현악으로 편곡<sup>38)</sup>된 북한의 대표적인 기악곡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양악관현악에 민족적정서가 풍부하며 맑고 화려한 음색을 가진 새납과 썩과리를 배합하여 주체농법의 해빛아래 풍년을 이룩한 농민들의 기쁨과 긍지를 풍만한 민족적선율과 장단, 독특한 관현악편성으로 흥취나게 형상”한 작품이고 하면서 주제선율의 전개 양상과 관현악이 연주하는 흥겨운 휘모리장단, 그리고 양악 관현악에서 새납과 썩과리가 표현하는 농민들의 기쁨을 느낄 것<sup>39)</sup>을 주문하였다. 교수참고서에는 음악 감상이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정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주체농법을 펼치시어 온 나라에 풍년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

38) 사회과학원, 『DVD문학예술대사전』(2006).

39) 권명숙 외, 『예술(고급중학교 1학년용)』, 20쪽.

길이 전하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나라를 길이 빛내여갈 굳은 결의를 다지도록 교양”하는 것이 이 감상 교육의 목적<sup>40)</sup>이라고 밝혔다. 2학년의 감상곡인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의 원곡인 가요 <조선은 하나다>는 1974년에 성동춘이 작곡한 행진곡풍의 노래이며, 12/8박자의 중중모리 장단을 사용한 민요풍의 노래이다. 그러나 이 노래의 음계가 민요음계가 아닌 7음음계를 사용하고 있어 교재분석자료에서는 민족적 정서 등을 강조하지 않았다. 다만 “피아노협주곡 같은 음악형식도 철저히 우리 식으로 하여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어록과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억센 기상과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절절한 념원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반영하고” 있다<sup>41)</sup>는 설명만 붙여 놓았다. 이와 함께 혁명가극 감상에서 <금강산의 노래> 중 첫 부분에 나오는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는 6/8박자의 반굿거리장단에 메나리토리와 반경토리의 선율을 사용한 민요풍의 노래이다. 교과서에서는 이 곡을 <혁명가극>음악 감상의 부교재 악곡처럼 제시해 놓았다.

다음으로 1학년 가창곡으로 제시된 <강성부흥아리랑>(2001), <먼저 찾아요>(2002), <통일무지개>(1993)과 2학년 가창곡인 <우리 장단이 좋아>(1994), 3학년 가창곡인 <철령아래 사과바다>(2014)는 모두 민요풍의 노래이며, 엇모리장단의 <먼저 찾아요>를 제외한 나머지 노래들은 모두 안팎장단을 사용한다. 이 중 <강성부흥아리랑>에는 안팎장단의 기본장단과 변장단, 민요의 개념, 굴림과 같은 민요의 창법 등을 설명해 놓아 주목된다.

40) 권명숙·리선옥, 『예술교수참고서(음악무용)』, 47쪽.

41) 김근일·김명호·김송설·림옥화, 『중학교음악무용교재분석(사범대학)』, 99쪽.

<그림 3> 고급중학교 1학년 민요의 굴림과 창법

**민요의 굴림**

민요는 굴리는 맛이 있어야 한다.

굴림은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기 위하여 선율을 가공하고 장식하여 내는 소리이다. 민성은 독특한 굴림으로 하여 양성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종류

- 장식적 굴림 (김소리를 붙이는 것)
  - 예: 가요 <강성부흥아리랑> 중에서
- 선율적 굴림 (3만음부서굴림)
  - 예: 가요 <제일처럼 너정대> 중에서

『예술』 교과서 수록 민요의 굴림, 29쪽

장군님 의 — 은 길 따 라  
주세 강국 나 — 메 선 다

민요창법기호

얕은 풍성 ~~~~~~ 얕은 풍성은 얕게 풍성을 하라는 뜻이다.

깊은 풍성 ~~~~~~ 깊은 풍성은 깊고 길게 풍성을 하라는 뜻이다.

지속풍성 ~~~~~~ 지속풍성은 지속하다가 점차 빨리 얕은 풍성을 하라는 뜻이다.

감아풍성 ~~~~~~ 감아풍성은 크게 한번 감아주고 점차 풍성을 빨리 하라는 뜻이다.

『예술교수참고서』의 민요 창법과 기호, 65쪽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민요의 굴림’을 보면, “민요는 굴리는 맛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굴림은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기 위하여 선율을 가공하고 장식하여 내는 소리”이며, “민성은 독특한 굴림으로 하여 양성과 뚜렷하게 구별된다”라고<sup>42)</sup> 하였다. 그리고 교수참고서<sup>43)</sup>에서는 민요풍의 노래를 부를 때 소리를 만드는 방법, 호흡, 두성공명, 그리고 필요한 민요창법을 설명해 놓았다. 특히 <강성부흥아리랑>의 후렴구 앞에 나오는 지속음을 연주할 때 “굴림을 적용하여 감칠맛있게 형성”하여야 하며, “지속음은 호흡에 실린 소리로 가볍고 연하게 끌어

42) 권명숙 외, 『예술(고급중학교 1학년용)』, 29쪽.

43) 권명숙·리선옥, 『예술교수참고서(음악무용)』, 64-65쪽.

주고 소리는 점차 두성방향으로 띄워주는듯 한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여야” 음정이 떨어지지 않고 정서적 기분이 처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손길따라》, 《아리아리아리랑》에서는 호흡을 잘 받쳐 주고 유지하면서 한음한음 둥글고 유연하게 연결하여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랑, 흥이 나는 감정정서를 잘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민요풍의 노래와 함께 2, 3학년의 가창 제재곡인 <도라지>와 <노들강변>은 모두 세마치장단(북한에서는 양산도장단)으로 부르는 경기민요 스타일의 노래이며 북한에서 자주 언급하는 민족적 흥취가 잘 드러나는 노래이다. 또한 군중무용 제재곡으로 제시된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디스코리듬과 비슷한 4박 계통의 안땡장단이며, <노들강변>은 왈츠와 비슷한 3박 계통의 악곡이어서 군중무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스코와 왈츠의 민족음악 버전처럼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급중학교의 민족음악 교육은 가창과 감상 외에 창작 영역에서 한 번 보인다. 그러나 민요의 5음계 선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제시된 동기선율 2마디를 발전시켜 한도막형식의 악곡을 만들도록<sup>44)</sup> 하여 실제 학생들이 민족적 선율을 창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4. 김정은 시대 중학교 교육에서의 교육정책 반영과 민족음악 교육

김정은 시대는 출범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인민들을 교양하는 데 힘써 왔다. 그리고 교육부문에서 전반적 12년제

---

44) 김군일 외, 『중학교음악무용교재분석(사범대학)』, 98쪽.

의무교육제도와 학제의 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이름의 정상적인 국가 형태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의도는 김정은이 창단에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이 2009년 창단된 후 해체되었던 2013년 7월까지 <애국가>를 시작음악으로 사용하였던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논하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해이해졌던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북한 사회와 인민, 그리고 예술계를 자본주의사상으로부터 단속하는 데 힘썼다. 4대교양이나 5대교양이라는 인민교양의 키워드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싹트게 될 자본주의적 성향들을 일찌감치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과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은 새 세대들이 시대의 일군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김정일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신념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양, 혹은 교육 관련 정책은 새롭게 제작된 중학교 음악교과서에도 반영되었다. 북한의 개정 교과서와 교수참고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출판되었으므로 교육 관련 당정책 또한 2016년까지의 것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 김정일애국주의는 교수참고서에 교육될 내용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음악교과서에 <애국가>와 <조국찬가>, <빛나는 조국> 등의 노래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2019년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보여주는 <우리의 국기>(2019)와도 상통한다. 즉 김정은 집권 초기의 김정일애국주의는 결국 우리국가제일주의로 귀결되며, 김정일애국주의의 확장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에 제시된 사회주의 경쟁 열풍이나 교육강국 건설 및 혁명

적 학습기풍 수립이라는 구호 역시 이미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과 목표, 교과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창 제재곡인 민요풍의 노래 <최우등 5점꽃>은 자강력제일주의나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반영한 악곡이다. 그리고 교수참고서와 음악교과서의 수록곡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경쟁열풍은 시험과 같은 다양한 평가로, 혁명적 학습기풍은 사상교육의 강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상교육은 학생들의 집단주의 교양과 그 확대형인 4대교양(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 그리고 2016 위대성교양이 추가된 5대교양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집단주의 교양과 실습위주의 교육은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즐거운 우리 무대>와 <우리 학급 기량발표회>로 귀결되었다.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지향하는 북한의 교양, 교육 정책은 민족음악 교육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족음악 교육은 감상과 가창 영역에서 주로 보였으며, 옛 민요보다는 북한에서 새롭게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를 제재곡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10대 청소년들의 음악적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민족적 전통 역시 유의미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급중학교의 민족음악 제재곡은 민요풍의 노래와 신민요이며, 초급중학교에 비해 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아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민족음악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민요풍의 노래의 기악버전을 민족관현악이 연주하는 것이 아닌 양악오케스트라에 민족악기가 섞여 있는 부분배합관현악편성의 악곡을 감상하게 하는 점이나 아예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와 같이 양악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악곡을 제재곡으로 삼은 점 등은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악곡들을 다매체편집물, 즉 DVD로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한 것으로

과학 중시나 교육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 전통이 과거의 음악 속에서 배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닌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민요풍의 노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국외에서 창작되고 연주되는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음악교과와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지속된 전통이 아닌 만들어 가는 전통에 방점을 둔 음악 교육 정책의 결과일 것이며, 후자는 여전히 김정일 시대의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강조되면서 1996년 교과서에는 민족음악 관련 단원 비중이 높아져 8곡으로 늘어났으며, 그 노래들이 옛 노래보다는 현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민요풍의 노래에 집중<sup>45)</sup>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면서 민족적 전통을 교육할 수 있는 민요 교육이 요구되었기에 고급중학교 과정으로 갈수록 민족음악의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개정 교과서를 보면 민족음악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매우 축소되어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방향의 음악 교육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결국 김정은 시대에는 세계화나 세계적 수준보다는 국가적 위상의 확립과 애국주의가 강조되었으며, 음악 교과의 내용에서도 국외의 음악적 내용보다는 국내 음악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민요가 아닌 새롭게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로 민족적 전통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하겠다.

■ 접수: 11월 16일 / 수정: 12월 7일 / 채택: 12월 8일

---

45) 배인교,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제35집 (2012), 61~94쪽 참조.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권명숙·리선옥, 『예술교수참고서(음악무용) 고급중학교 제1학년』(원산: 교육도서출판사, 2013).

권명숙·신옥연·리선옥·맹철웅·서명일·리은경, 『예술(고급중학교 2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권명숙·신옥연·림옥화·맹철웅·문배금·석은주, 『예술(고급중학교 1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김군일 외, 『중학교음악무용교재분석(사범대학)』(원산: 교육도서출판사, 2016).

최동욱·신옥연·장명숙·신은영, 『음악무용(초급중학교 제2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최동욱·조영필·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초급중학교 1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최동욱·장명숙·림옥화, 『음악무용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제1학년)』(원산: 교육도서출판사, 2013).

#### 2) 논문

김송이, “초급중학교 음악무용과목교육내용편성의 특성,” 『교원선진원수첩』, 제1호(2017), 147~148쪽.

김순녀, “연단: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자면,” 『예술교육』, 제5호(2014), 46쪽.

김영직, “해설: 예술교육부문 학생들을 사상전의 기수들로 키워내자,” 『예술교육』, 제2호(2015), 20~21쪽.

김춘복, “연단: 학생들속에서 4대교양을 강화하자면,” 『예술교육』, 제6호(2014), 21~22쪽.

김휘웅, “론설: 학생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적예술인재로 키우는것은 주체예술교육의 근본문제,” 『예술교육』, 제4호(2013), 16~17쪽.

- 리창덕, “해설: 예술교육부문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예술교육』, 제3호(2019), 21~22쪽.
- 미상, “(사설)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대를 높은 예술교육성공과로 끝없이 빛내여가자,” 『예술교육』, 제2호(2012), 13쪽.
- 미상, “사설: 김정일애국주의를 예술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자,” 『예술교육』, 제6호(2012), 13쪽.
- 미상,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예술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예술교육』, 제1호(2013), 13쪽.
- 미상, “소식: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되었다,” 『예술교육』, 제4호(2014), 23~24쪽.
- 미상, “사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예술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예술교육』, 제5호(2014), 11~12쪽.
- 미상,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예술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해나가자,” 『예술교육』, 제1호(2015), 11~12쪽.
- 미상, “해설: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 『예술교육』, 제5호(2016), 12쪽.
- 미상, “사설: 예술교육부문에서는 5대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혁명적예술인후비로 키워내자,” 『예술교육』, 제6호(2016), 11~12쪽.
- 미상, “사설: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쳐 예술교육부문 5개년전략 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예술교육』, 제1호(2017), 11~12쪽.
- 미상, “사설: 예술교육부문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예술교육』, 제4호(2017), 11~12쪽.
- 본사 기자, “(단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예술인재육성,” 『예술교육』, 제2호(2013), 12쪽.
- 차성철, “연단: 교육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몇가지 문제,” 『예술교육』, 제2호(2014), 34쪽.
- 최은경, “해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원대한 목표,” 『예술교육』, 제1호(2015), 17쪽.

### 3) 기타

『2013년 이후 북한 교과서 김정은 시대 북한교과서1』(전자 자료)(평양: 조선컴퓨터

터센터, 2017).

『북조선 김정은시대의 중학교 교과서 자료집』(컴퓨터자료)(大阪: Asiapress international 출판부 제작, 2017).

사회과학원, 『DVD문학예술대사전』(2006).

『중소학교교과서, 참고서 대학』(전자 자료)(평양: 교육도서전자출판사, 2017).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김애경·김혜정 외, 『초등학교 음악 5~6지도서』(서울: 천재교육, 2019), 12쪽.

통일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 2) 논문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5점꽃’ 담론으로의 귀결,”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서울: 경진, 2014), 263~299쪽.

배인교,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제35집(2012), 61~94쪽.

차승주, “북한의 시대별 교육담론,” 『통일인문학』, 제79집(2019), 253~285쪽.

### 3) 기타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 Party Policy Slogans and Middle School Ethnic Music Education in the Kim Jong Un Era

Bae, Ingyo(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article examines aspects of the Korean Workers' Party's policy slogans in the Kim Jong Un era related to arts and education of the people and the application of the slogans in textbooks,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music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among the revised textbooks in North Korea.

Since 2012, Kim Jong Un's innovative policies and slogans have been applied to education policies and the arts. In particular, socialist civilization, Kim Jong Il's patriotism, cultural and education power, and socialist competition resulted in and promoted 'our state first' principles presented in 2019.

Following this, the study examines the application of party policy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revised during the Kim Jong Un era and the contents of national music education.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Kim Jong Un era,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tatus and patriotism rather than globalization or being world-class are being

emphasized. Also, music contents emphasize domestic music rather than foreign musical content, and Kim is trying to establish a national tradition not on folks songs of the past but on newly created folk songs.

Keywords: socialist civilization, patriotism, ‘our state first’ principl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ethnic music education, newly created folk songs, ethnic tradition